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전북 미래교육의 메카, 전주에 들어선다

‘미래교육캠퍼스’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통과

전라중 부지에 설립... 울산·경남에 이어 전국 3번째
2026년까지 479억 투입... 기술·진로체험관 등 건립

전북 미래교육의 메카가 될 미래교육캠퍼스가 전주에 들어선다. 울산, 경남에 이어 전국 3번째다. 서거석 교육감이 지난 선거 과정에서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미래교육캠퍼스 설립 사업이 지난달 27일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서 교육감은 8일 전라중 학교에서 현장 브리핑을 갖고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미래교육캠퍼스 설립사업이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학교 신설이 아닌 교육기관 설립이 중앙투자심사 첫 번째 심사에서 승인된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미래교육캠퍼스는 도교육청이 전주 에코시티로 이전하는 전라중학교 부지에 설립하려는 전북 미래교육의 핵심사업이다.

이날 도교육청에 따르면 2021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전주교육지원청이 이전해오는 조건으로 전라중 이전을 승인받았으나, 서거석 교육감이 후보 시절 행정기관이 아닌 학생들을 위한 미래교육시설을 설립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면서 새롭게 추진된 사업이다.

이를 받아야 하는 등 난항이 예상됐지만, 서 교육감의 의지로 단 한 번의 도전만에 목표를 이뤘다.

이 자리에서 서거석 교육감은 “학생들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간절함을 갖고 교육부를 지속적으로 설득해 이뤄낸 전북도민의 성과”라고 언급했다.

실제로 서 교육감은 취임 이후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주호 교육부장관, 장상운 교육부차관 등을 만나 미래교육캠퍼스 설립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이번 중앙투자심사에 공을 들여왔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전라중 이전 부지에 전국 최고 수준의 미래교육캠퍼스를 건립해 이 일대를 전북 미래교육의 메카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올해부터 2026년까지 약 479억원을 들여 △미래기술체험관 △미래진로체험관 △미래교육관 △공유관 △e-스포츠관 등을 갖춘 미래교육캠퍼스를 건립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라중 본관 건물은 리모델링해 수학체험관, AI 소프트웨어 교육관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이어 강당은 e-스포츠관으로 사용된다.

또 운동장 자리에는 4층 신축 건물을 지어 미래기술체험관, 미래진로체



서거석 교육감은 8일 전라중학교에서 현장 브리핑을 열고, “지난달 27일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미래교육캠퍼스 설립사업이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험관 미래교육관, 공유관이 들어선다. 미래기술체험관에서는 AI, VR, AR, 햅틱, 휴머노이드 등 공간을 한계를 뛰어넘는 미래 정보통신 기술을 체험하게 된다.

미래진로체험관은 우주 관제사나 디지털 바이오 개발자, AI 의료전문가 등 미래직업을 체험하는 공간이다.

미래교육관은 3D방송장비, AR장비, 코딩SW, 로봇 등 에듀테크 기반 프

젝트 학습 공간이며, 공유관은 세계미래교육체험존, 지역네트워크협력존, 지역 대학 협력존 등 미래교육 확산 공간으로 조성된다.

이와 함께 전북교육청은 전주시가 전라중 인접 전주종합경기장에 미술관, 실감콘텐츠 체험관, 메타버스 체험관 등 다양한 교육문화시설을 조성할 계획인 점을 감안해 이 일대를 미래교육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2023년 7월 개관을 목표로 세부 사업계획을 마련해 내년 하반기 착공에 들어가기로 했다.

서 교육감은 “학생중심 미래교육 거점 기관인 미래교육캠퍼스의 중앙투자심사 통과 소식을 일리케 돼 기쁘다”면서 “앞으로 도민과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해 미래교육캠퍼스를 전북 미래교육의 메카로 탈바꿈시켜겠다”고 강조했다. /정은성 기자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 2건 선정

도, 익산·완주 등 6억6000만원 확보

전북도는 산업통상자원부의 ‘2023년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 공모에 익산·완주 뿌리산업 특화단지 등 2건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은 전국 45개 뿌리산업 특화단지를 대상으로 뿌리기업의 집적화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국가사업이다.

이번 공모선정으로 익산·완주 뿌리산업 특화단지는 4억원, 완주 뿌리산업 특화단지는 2억6,000만원 등 총사업비 6억6,000만원을 확보했다.

익산·완주 뿌리산업 특화단지는 귀금속 표면처리 업체를 중심으로 형성됐으며 2018년 특화단지 지정 이후 2021년, 2022년에 이어 3년 연속 선정됐다.

올해는 “공공브랜드 비즈니스 모델 구현을 위한 디지털 커머스 생태계 조성”을 추진한다.

주요내용은 △주요 라이브 커머스 및 제품 촬영을 위한 전용 스튜디오 조성, △고객관리 마케팅 및 전자상거래 전략 프로그램 교육, △오프라인 활동 강화를 위한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간담회·포럼 개최를 통한 네트워크 활동 등이다.

완주 뿌리산업 특화단지는 금형 업체를 중심으로 형성됐으며, 2015년 특화단지 지정 이후 해외 마케팅 등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글로벌 시장개척을 위한 엔지니어링 전문기술 지원”을 추진한다.

주요내용으로 자동차 부품개발을 위한 △역설계 지원, △특화단지 네트워크 활성화, △전문가 활용 컨설팅 지원, △해외 시장개척 및 벤치마킹 연수단 파견 등이 있다.

한편, 전북도는 향후 ‘제4차 전북 뿌리산업 종합발전계획(2024년~2028년)’을 수립할 예정이다. /김재훈 기자

우분연료 생산·공급·이용 기반 마련

전북도, 국립축산과학원·전북환경청·새만금유역 내 4개 시군 등과 협약 체결
1일 650톤 우분 재활용시 162.5톤 연료 생산 가능, 244여톤 이산화탄소 저감 효과

이병철 환경복지지원장도 동행해 협약을 축하하며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했다.

우분 고체연료화 사업은 지난 2020년 새만금 3단계 수질개선훈조치 반영된 뒤에도 수요자를 찾지 못해 지연됐던 것을 전북도가 이날 새만금산단 열병합발전소 3개소와 연료공급 협약을 이끌어냄으로써 전국 최초로 우분 연료

화 사업을 본래도에 올려놓는 등 활로를 뚫어냈다는데 의미가 크다.

이 협약으로 새만금유역 내 4개 시군에서 발생되는 하루 650톤의 우분을 재활용할 경우 하루 162.5톤의 연료 생산이 가능하고, 이 때 약 244톤의 이산화탄소(CO2) 저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계된다.

이는 1ha(1만㎡) 축구장 8,246개 면

적에 30년생 소나무 5만9,041그루 식재 또는 자동차 3만7,108대를 1년간 미운행하는 효과와 같다.

또한 새만금유역 내 정읍, 김제, 완주 등은 전국에서 손꼽힐 정도로 한우 사육두수가 많은 만큼 공공처리시설의 확대가 요구되고 있고 일부 시군에서는 수질오염 총량 규제에 의해 개발사업 마저 중단이 우려되는 실정이며

서 이 사업을 통해 한우 농가들의 영농부담 해소와 새만금산단내에 재생에너지를 공급함으로써 친환경·책임·투명(ESG) 경영에 나서는 기업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우분 연료 재생에너지를 생산·이용함으로써 향후 탄소배출권 시장도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도내 기업들이 더 새로운 성장기반으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는 이에 따라 앞으로도 정기·수시 협의체를 지속 운영해 우분 연료의 생산·공급·이용 및 확대 기반 마련을 통해 생명경제 추수와 탄소중립에 선도적으로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김재훈 기자

2023년도 여행은 풍요롭고 찬란한 고창에서

고창군

2023 세계유산도시 고창 방문의 해